

2011년 전국산림경영인 하계연찬회 개최

우리협회에서는 금년도 사업계획에 따라 「2011년 전국산림경영인 하계연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 일시 : 2011. 6. 16(목)~17(금) [1박 2일]
- ◎ 장소 : 충청남도 공주시, 연기군일원
 - 충청남도 교통연수원
 - 국립공주박물관, 무령왕릉, 한옥마을
 - 충청남도산림환경연구소, 산림박물관
 - 세종시 관람대
 - 연기군 목재펠릿공장, 전통장류뮤움박
 - 베어트리파크

◎ 참석자

- 내빈 : 24명
- 이돈구 산림청장
- 심대평 국회의원(공주, 연기)
- 구삼희 충남도환경녹지국장
- 윤정수 중부지방산림청장
- 이중락 산림청산림소득과장
- 함홍식 사무관
- 이준원 공주시장
- 윤석우 충남도의회의원
- 고광철 공주시의회의원
- 박갑철 공주시산림녹지과장
- 서동면 산림조합중앙회 부회장
- 서경석 산림조합중앙회 상임감사

이규수 산림조합중앙회 충청남도지회장
양학순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김생연 공주시산림조합장



신용운 임업후계자협회 중앙회장
강구영 임업후계자협회 중앙사무총장
최원창 임업후계자협회 충남지회장
정목영 임업후계자협회 공주시지회장
임헌균 임업후계자협회 연기군지회장
박정근 산림복합경영인협회 사무총장
김윤오 산양삼재배자 협회장
조좌연 밤재배자 협회장
안진찬 산림아카데미 부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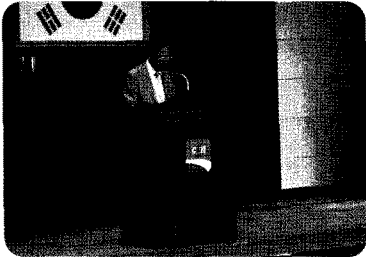
- 회원: 231명(가족 42명 포함)

서울·경기·강원 ▶	32명
충 북·충 남 ▶	30명
전 북 ▶	34명
전 남 ▶	47명
경 북 ▶	43명
경 남 ▶	45명



연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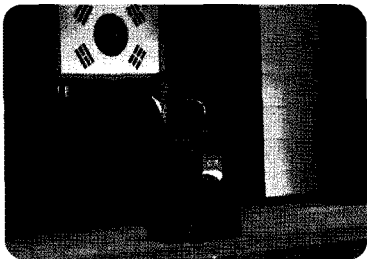
1. 하문섭회장 개회사 (전문:4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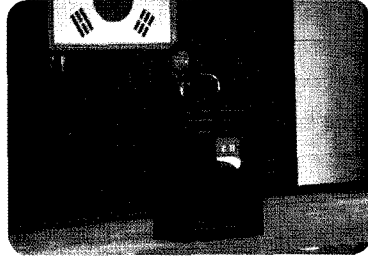
2. 이돈구 산림청장 격려사 (전문:6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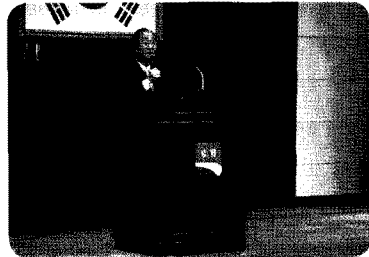
3. 구삼희 충청남도 환경녹지국장 환영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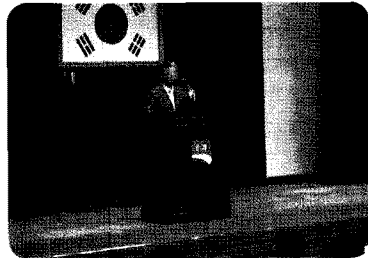
4. 이준원 공주시장 축사



5. 심대평 국회의원 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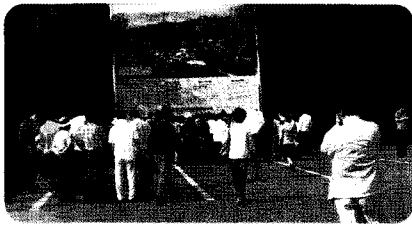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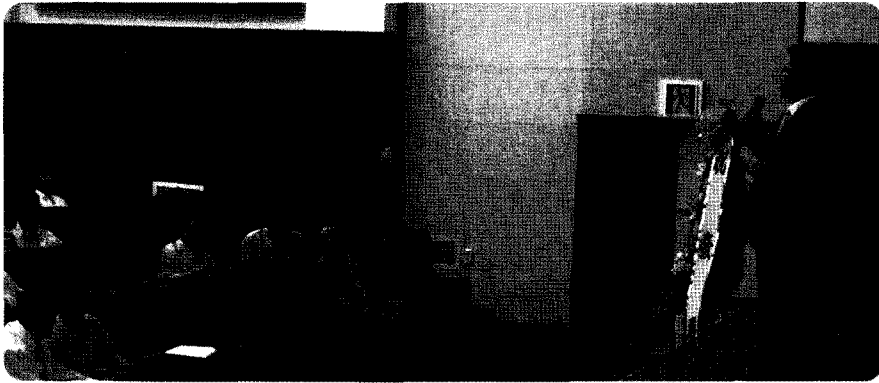
6. 서동면 산림조합중앙회 부회장 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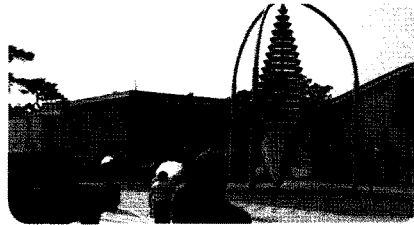
- ◎ 조연환 생명의 숲 국민운동 상임대표 (우리협회 명예회장)특강



◎ 이종락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장
“산림사업지원 정책 소개” 강의-교재배부



산림환경연구소견학



세종시관람



목재 펄릿공장 견학



전통된장마을견학



베어트리파크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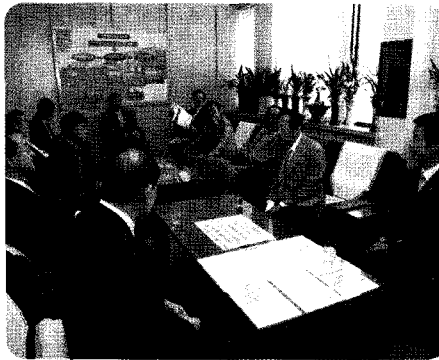


친 교

◎ 산림유공자 표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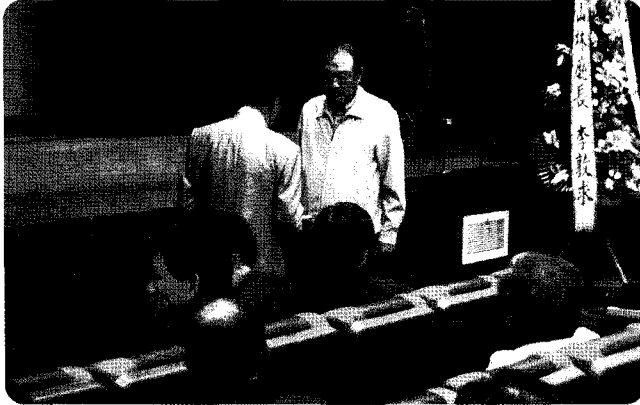
구 분	성 명	소 속	직 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 동 일	전남지회	협회 이사
산림청장	최 병 을	경남지회	회 원
산림청장	김 영 태	전북지회	회 원
산림청장	권 오 산	충남지회	회 원

상기 4명에 대한 산림사업공적을 찬양하는 표창(부상-손목시계)을 이돈구 산림청장께서 하여 주셨습니다. 축하합니다.



◎ 2012년도 전국 산림경영인 하계연찬회 개최지 결정서 전수.

아래와 같이 2012년도 하계연찬회개최지 결정서를 하문섭 회장께서 김형만 광주·전남 지회장께 전수 하였습니다.



한경협 제2011-66호

결정서

2012년도 전국한국산림경영인 하계연찬회를 개최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사단법인한국산림경영인협회 이사회에서 의결 결정하였기 결정서를 드립니다.

-아 래-

- 개최지: 전라남도
- 개최시기: 2012년 6월

2011. 6. 16

(사)한국산림경영인협회



(사)한국산림경영인협회 전라남도지회장 귀하

《 하계연찬회 관련기사 》

한국임업신문 제710호

2011년 6월 23일 목요일

“경제림으로 수종갱신하는 산림정책 펴야”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하계 연찬회 개최, 정부에 정책대안 제시

(사) 한국산림경영인협회(회장 하문섭)은 지난 16·17일 충남 공주시 충남교통 연수원에서 2011년 전국산림경영인 하계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찬회 개회식에 이돈구 산림청장, 심대평 국회의원, 구삼희 충청남도 환경녹지국장, 이준원 공주시장, 서동면 산림조합중앙회 부회장, 신용운 한국임업후계자 협회장, 조좌연 밤재배자협회장, 김운오 한국산양삼 재배자 협회장, 등 내빈과 회원 2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하문섭 산림경영인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세계적인 산림녹화성공 이룩했다”며, “이제는 목재자급을 향한 성장 동력을 집중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산림이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지구온난화 방지에 중차대한 구심적 역할을 하고 있을뿐 아니라 국민에게 아무 대가없이 연간 수백조원의 공익적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정부는 이에 따른 보상차원에서 산림 직불제도를 실시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회장은 아울러 “현재 산지에 녹화되어있는 나무를 경제림으로



한국산림경영인협회하계 연찬회가 지난 16·17일 개최되고 있다.

하문섭회장 “산림직불제 도입, 산림공익가치 보상해야”

이돈구청장 “산림소득증대·글로벌 산림 리더국 될 것”

수종갱신하는 산림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돈구 산림청장은 격려사에서 “올해는 유엔이 정한 세계 산림의 해로 산림의 중요성을 세계가 공감하고 있다”며, “피땀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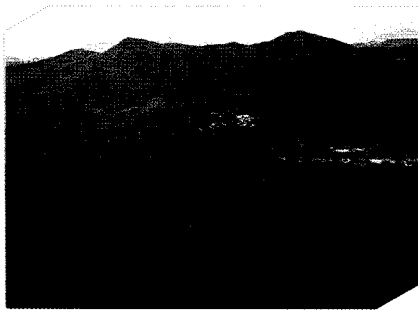
린 노력으로 산림녹화에 성공했고 산림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세계적인 문제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산림소득증대에 노력해 글로벌 산림 리더국이 되고자 최선을 다 하겠

다”고 밝혔다. 또한, 이 청장은 강한 실천과 열정으로 산림경영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특히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임업인을 대우하고 삼가는 행정을 강화할 것과 산림이 생산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기반이 되도록 산림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식목일, 산불발생 크게 줄었다

- 식목일 평균 19건, 올해는 5건으로 예년의 1/4에 불과 -



식목일인 5일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5건에 불과해 그동안 바짝 긴장하고 있던 산림청이 한숨을 돌렸다.

이날 산불은 강원 춘천, 충남 보령, 충남 당진, 충북 옥천, 인천 연수구에서 각각 발생해 모두 2ha 가량의 산림피해를 냈다. 산불원인은 입산자실화, 공사장화재 비화, 성묘객

실화가 각각 1건, 쓰레기 소각 2건으로 나타났다.

식목일은 그동안 산불이 가장 많이 나는 날로 기록되고 있는데 지난 2002년 63건이 발생한 것을 비롯해 하루 평균 산불건수가 19건(71ha)에 이른다. 산림청은 최근 영남지방에서 큰 산불이 발생해 바짝 긴장한 상태로 식목일을 맞았으나 다행히 큰 산불없이 식목일을 보낼 수 있었다.

2006년 식목일이 공휴일에서 제외되긴 했으나 이 시기는 청명·한식과 겹쳐 있어 여전히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6일까지 산불비상경계령을 발령한 상태다. 산림청은 한식인 6일이 올해 산불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본청 직원 200여명을 포함해 전국의 산림 공무원을 현장으로 배치해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산림청은 식목일은 잘 넘겼지만 해마다 4월이 1년 중 대형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달이어서 산불조심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입장이다. **산림**

문의 : 산림청 산불방지과 정철호 사무관(042-481-4255)

이명박 대통령, 강변에서 희망을 심는다

- 제66회 식목일에 여주 남한강변에서 지역주민·학생·임업인들과 나무심기 -



이명박 대통령은 5일 제66회 식목일을 맞아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남한강변에서 지역 주민과 학생, 임업인 등 400여명과 함께 나무심기 행사를 갖는다.

올 식목일 나무심기는 유엔이 정한 '세계 산림의 해'와 10월 아시아 최초로 창원에서 개최될 유엔 사막화방지 협약 당사국 총회 개최를 국가적으로 기념하는 행사로

열린다. 또 숲의 외연을 확대하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그동안 산림지역에만 심어오던 나무심기를 도심, 강변, 저수지 주변지역 등으로 넓혀 올해에는 강변에서 식목행사를 열기로 했다. 국토녹화의 기존 성과에 더해 수변 생태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울창한 산림과 물이 가득 흐르는 강을 실현해 치산 치수를 완성한다는 취지에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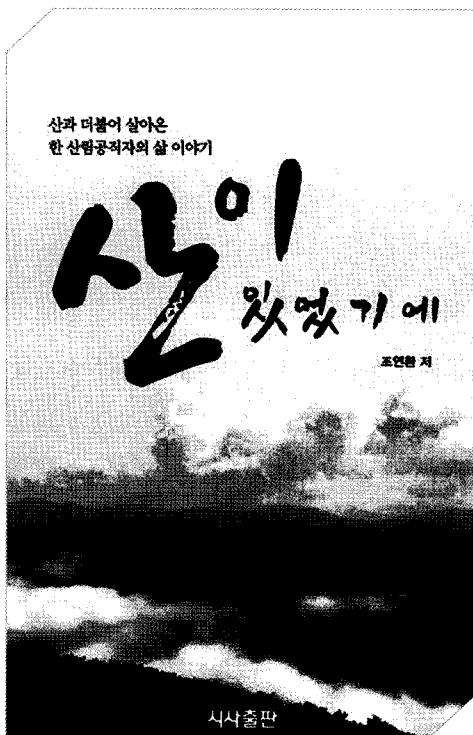
이날 나무심기 행사에서는 남한강과 인접한 2.8ha(약 8400평)의 수변공간에 이팝나무 상수리 나무 버드나무 등 300그루의 나무를 심을 계획이다. 이 나무는 내 고장의 산과 강을 아름답게 가꾼다는 의미에서 참여자들이 직접 구입해 심는 것으로 나무에는 심은 사람 이름을 부착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나무심기를 마치고 식목행사 참여자들과 함께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타임캡슐 매설 행사에도 참여한다. 타임캡슐에는 결혼 및 탄생기념일 등 나무심기에 참여자들의 다양한 사연과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에 관한 글과 그림을 담아 묻었다가 20년 후인 2031년 식목일에 개봉할 예정이다. **山林**

문의 : 산림청 산림자원과 조준규 사무관(042-481-4185)

“산이 있었기에 내가 있었다”

- 조연환 전 산림청장, 산과 숲을 노래한 산문집 ‘산이 있었기에’ 출간 -



제25대 산림청장을 지낸 조연환씨가 평생을 산과 더불어 살아온 경험을 풀어낸 산문집 ‘산이 있었기에’를 출간했다. 올해는 UN이 정한 ‘세계 산림의 해’ 산림의 중요성을 세계가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인데 조 전 청장은 이에 때맞춰 산과 함께 나뉘은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냈다.

저자는 최말단 산림공무원으로 산림청에 들어가 38년만에 우리나라 산림정책을 총괄하는 산림청장에 오른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다. ‘산이 있었기에’는 조 전 청장이 산림청에 재직하면서 겪어온 산과 나무, 삶에 얽힌 애환을 써 내려간 글이다.

책의 제목대로 그는 “산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었다”고 말한다. 저자는 백두대간이 파헤쳐지는 현장을 목격한 뒤 백두대간을 지켜 내려는 10년간의 싸움을 했다. 결국 그 싸움에서 이겨 백두대간 마루금 정상에서 승리의 함성을 외친다. 그런가 하면 그동안 심어만 놓고 가꾸지 못해 죽어가는 숲을 보며 절규하기도 한다. 나무를 심어야 할 식목일에 나무를 심지 못하고 산불을 꺼야만 하는 안타까운 심정도 토로한다.

그는 이 책의 1, 2장에서 ‘나무의 마음, 숲의 노래’ 라는 제목으로 TV 등에서 강의한 내용을 풀어 썼다.

나무와 숲이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 나무를 살리는 길은 무엇인지를 서정적으로 기술하는 1,2장은 저자가 책을 쓴 목적이기도 하다.

이 책은 산이 인간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 번 깨우치게 해 준다. 이 땅의 나무와 숲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지도 알려 줄 것이다. 세계 산림의 해, 나무심기 좋은 이 계절에 산과 숲이 한층 더 사랑스러워질 것이다.


저자 소개

은산(恩山) 조연환(曹連煥)

충북 보은에서 태어나 농고를 졸업하던 해 최말단 9급 조건부임업기원보로 산림공무원 생활을 시작해 재직 중에 제16회 기술고등고시에 최고령으로 합격했고 산림청 주요보직을 거쳐 제25대 산림청장을 지냈다.

38년 4개월 동안 산을 어머니로 믿고 고통받는 숲을 숲답게 가꾸기 위해 노력한 공적을 인정받아 대통령표창, 홍조근정훈장, 황조근정훈장, 자랑스러운방송통신대학인상과 녹색공무원상을 수상했다.

시인정신과 공무원문예대전을 통해 시인으로 등단했다. 시집 '그리고 한그루 나무이고 싶어라' '숫들의 눈물' '쇠뿔구리는 똥을 더럽다고 안하지' (동시: 공저)가 있다. 제4회 공무원문예대전 대상(대통령표창)과 한국장로문학상을 받았다. 충남 금산 봉황천변에 녹우정(綠友亭)을 짓고 아내와 함께 나무를 돌보며 농사짓는 재미에 푹 빠져 있다.

서울 면목동 '동일교회' 장로. 재단법인 '한국숲재단' 과 '한국산림아카데미' 이사장. 숲전문 시민단체 '생명의숲가꾸기국민운동' 상임공동대표. e-mail:choyonhwan@paran.com 

문의 : 산림청 대변인실 이용석 사무관(042-481-4078)

“산림유전자원 해치는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절대 안돼요”

- 6월24일까지 산림보호구역 불법채취 집중단속...적발땀 징역·벌금형 받을수도 -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18일부터 6월 24일까지 각 지방산림청과 지자체의 산림사법경찰관·산림보호감시원 등을 투입해 전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백두대간 보호구역 및 희귀·멸종위기 식물 자생지에서 산림유전자원을 해치는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자연산 임산물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임산물 불법 채취가 성행하고 이 과정에서 귀중한 산림자원마저 훼손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산림청은 이 기간동안 인터넷과 생활정보지 등에서 유인한 회원들을 버스에 태워 소유자 동의없이 산나물·산약초나 약용수종인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엄나무 등 희귀식물 채취에 동원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캐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김현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을 찾는 분들은 보호구역에서 귀중한 산림자원을 훼손하는 행위를 삼가달라”고 당부하고 “봄철은 독초를 식용 산나물로 오인하는 사고 발생우려가 크므로 정확히 모르는 나물은 채취하지 말고 산불예방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산림**

문의 : 산림환경보호과 장관옹 사무관(042-481-4246)

해안 소나무의 적, 솔껍질깍지벌레 피해 정밀조사

- 21일부터 한달간 서·남해안 등 56개 시군구서 해송림 피해실태 조사 -



남 서해안 지역 소나무(해송)에 피해를 주는 솔껍질깍지벌레 발생 조사가 21일부터 시작된다.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피해가 외관상 가장 잘 나타나는 시기를 맞아 이날부터 5월 20일까지 전국 56개 시군구에서 서울 남산면적의 75배인 2만1855ha의 소나무림을 대상으로 솔껍질깍지벌레피해 발생조사를 실시한다.

서해안의 충남 태안부터 남해안을 거쳐 경북 포항·경주에 이르기까지 해안선 지역의 작년 피해지, 피해 선단지 등이 중점 조사 대상이다. 산림청은 이번 정밀조사 결과를 토대로 방제계획을 수립해 9월부터 11월까지 강도 속아베기 중심의 임업적 방제, 12월에는 나무주사를 각각 실행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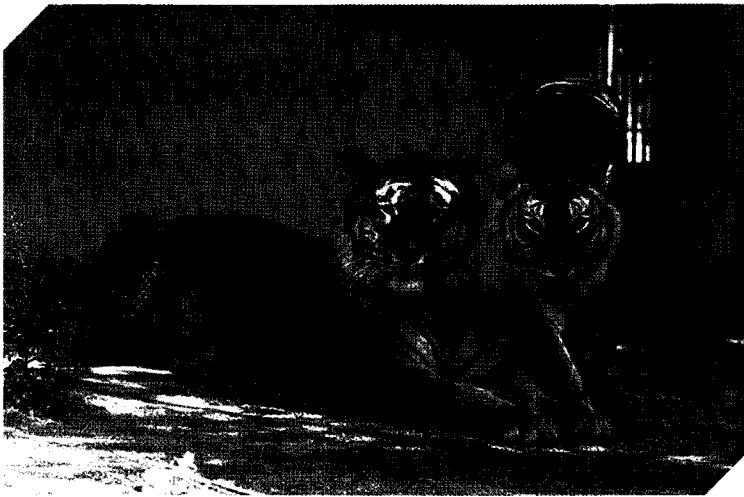
솔껍질깍지벌레는 1963년 전남 고흥 비봉산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 2007년에는 4만7000ha에까지 이르렀으나 정밀조사와 함께 임상과 피해양상에 따른 맞춤형 방제가 실시되면서 2008년부터는 감소 추세로 들어서 지난해는 피해 면적이 2만2000ha로 급감했다.

이명수 산림청 산림병해충과장은 “지속적인 정밀예찰과 적기 방제로 솔껍질깍지벌레 피해 감소세를 유지할 계획”이라며 “해수욕장 등 생활권 주변 생육환경 불량 해송림 지역을 생태적으로 건강하게 집중 관리하는 ‘해안 우량 해송림 종합방제사업’을 실시해 쾌적한 국토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산림**

문의 : 산림병해충과 최현수 주무관(042-481-4069)

금년 내 백두산 호랑이 한쌍 들어온다

- 산림청, 중국과 산림협력회의서 기증받기로 합의...백두대간 상징동물로 전시예정 -



올해 안에 중국에서 백두산 호랑이 한 쌍이 국내에 들어온다. 이 호랑이들은 2014년 만 들어지는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의 상징동물로 전시될 예정이다.

하영호 산림청 차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제8차 한중 산림협력회의의 한국 대표단은 19일 오전 중국 북경(北京)에서 중국 대표단(단장 인홍印紅 국가임업국 부국장)과 양국 산림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두 나라간 우호를 과시하고 백두산 호랑이 종을 번식시키기 위해 암수 1쌍을 한국에 도입하는 내용의 '백두산 호랑이 종 보전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백두산 호랑이는 1994년 한중 정상회담 당시 암수 1쌍을 중국으로부터 기증받은 이후 2005년 제5차 한중 산림협력회의 때 추가로 1쌍을 기증받았으나 2006년과 2010년에 암컷이 각각 폐사해 현재는 수컷 2마리만 살아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백두산 호랑이 종 보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번식에 성공하지는 못했고 남아있는 수컷들도 노화로 인해 번식이 어려운 실정이다.

산림청은 백두산 호랑이가 들어오는 즉시 동물원에 위탁한 후 경북 영주에 조성 중인 국립 백두대간수목원이 완성되는 2014년경 호랑이를 백두대간의 상징 동물로 삼아 이곳에 전시할 예정이다.

한편, 두 나라 대표단은 이날 회의에서 황사 발생 원인이 되는 중국 사막화 방지 활동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중국의 사막화를 막기 위해 중국 오르도스 사막의 생육에 적합한 식물상을 조사하고 방풍림 조성을 위한 조림기술을 공동연구하기로 합의했다. 또 길림성 등 한반도 인접지역의 기후변화 취약 산림생물종 조사 및 보존 연구 등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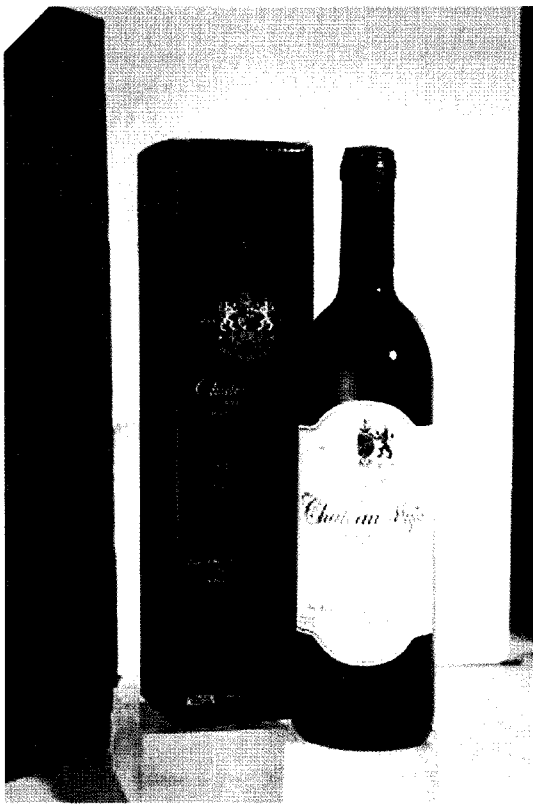
이어 한국은 올해 창원에서 열리는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제10차 총회에 중국의 협력과 지원을 요청해 중국의 적극적 협력 의사를 이끌어냈다. 중국은 기후변화 대응 산림 사업과 북경시 저탄소 산림공원 조성 등에 한국의 기술적 협조를 요청했다.

산림청은 1998년 6월 중국 국가임업국과 한중 임업협력 약정을 체결한 이래 사막화 방지, 산림복구 조림, 산림병해충 방제, 야생동물 종 번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 정부 또는 민간 단체 등과 협력해오고 있다. **산림**

문 의 : 산림청 국제산림협력추진단 송경호 사무관(042-481-4081)

무주머루와인, 임산물 가공품 최초로 지리적표시 등록

- 등록신청1년7개월만에 제37호 등록...충주밤도 밤으로는 두번째로 제38호 등록 -



전북 무주에서 생산되는 머루와인이 임산물 가공품으로는 최초로 산림청의 지리적표시 등록을 획득했다. 또 충북 충주 밤은 밤으로는 두 번째로 지리적표시제품으로 등록돼 각각 지역특화 산업 육성기반을 갖추게 됐다.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25일 사단법인 무주 머루와인 생산자협회(대표 조동희)와 사단법인 충주밤 생산자연합회(대표 김의충)가 각각 신청한 머루와인과 밤의 지리적표시 등록에 대해 각 품목의 지리적 특성과 품질 우수성을 인정해 지리적표시 제37호와 제38호로 등록했다. 무주머루와인은 지난 2009년 9월, 충주밤은 2010년 7월에 각각

등록신청한 뒤 두차례 서류심사와 현지조사

등 품질특성, 역사성, 유명성, 지리적 요인, 자체품질 관리기준 등에 대한 세부 심사과정을 거쳤다.

무주머루와인은 임산물 가공품으로는 처음으로 지리적표시에 등록됐다. 무주는 국내 머루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머루 주산지다. 무주 머루는 이미 지난 2009년 1월 지리적표시

제20호로 등록된 바 있다. 무주는 대부분의 과원(果園)이 해발 300m 이상의 준고랭지에 위치해 야생성이 강한 머루 본연의 품질 특성 유지가 가능하다. 일교차가 크고 일조시간이 길어 타 지역에 비해 당도 및 완숙도가 높고 영양이 풍부한 원료 머루 생산이 가능해 머루 본연의 맛과 향이 진한 것이 특징이다.

지리적표시 제4호로 등록된 공주 정안 밤에 이어 밤으로는 두번째로 등록된 충주밤의 주산지 충주는 생육에 알맞은 기온, 강수량, 일조량 등의 자연 환경적 요인과 일찍부터 보급된 재배 기술 교육 등의 인적요인 덕분에 고품질의 밤의 생산지로 알려져 왔다. 충주밤은 단맛이 풍부하고 비타민C와 필수아미노산이 많이 함유돼 우수한 영양학적 특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리적표시제는 ‘농·임산물 및 그 가공품의 명성·품질 기타 특징이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생산물이 그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우수한 지리적 특산품을 국내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WTO/TRIPs,94)’ 및 ‘한국-EU 기본협력’에 따라 지난 1999년 1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에 이를 도입했다. 지리적표시 등록 품목은 자체 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엄격하게 품질 관리된다. 지리적표시를 위반하면 표시정지·제명 등의 처분을 받는다.

임산물은 지금까지 양양송이(지리적표시등록 제1호)를 비롯해 장흥표고, 산청곶감, 울릉도 미역취 등 38개 품목이 지리적표시 등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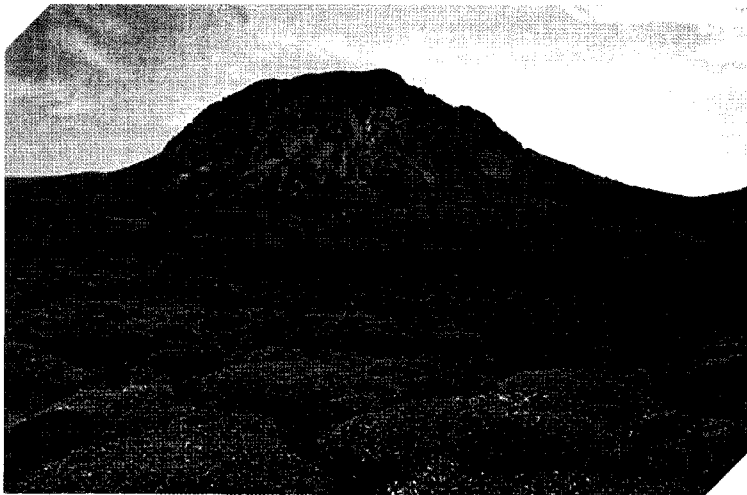
이중락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장은 “이번에 등록된 브랜드를 포함해 이미 등록된 임산물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지리적표시등록 임산물을 확대해 생산자 소득을 늘리고 소비자도 믿고 찾을 수 있는 청정 임산물 공급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림**

문 의 : 산림경영소득과 이우식 사무관(042-481-4206)

한라산둘레길

80km 중 9km 부분개통

- 산림청의 세 번째 트레킹길...한라산 중턱 한바퀴 돌며 생태·역사문화 체험 -



한라산 중턱을 한바퀴 도는 한라산 둘레길이 열린다. 산림청(이돈구)은 29일 오전 제주도 서귀포 자연휴양림 주차장에서 한라산둘레길 제1구간 개통식을 갖는다.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제주특별자치도 등 지역

주민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29일 한라산둘레길 제1구간에 대해 개통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우선 개통되는 한라산둘레길은 해발 600~800m 한라산 중턱을 한바퀴 도는 약 80km 중 서귀포시 법정사에서 서호동까지의 9km 구간이다. 이 길은 지리산둘레길과 울진 금강소나무숲길에 이어 산림청이 세번째로 추진하는 숲길 중 '트레킹길'이다.

한라산둘레길 제1구간은 중간에 강천강과 약근천이 지나는 곳으로 상록활엽수인 붉가시나무 붓순나무 동백나무를 비롯해 졸참나무 서어나무 등이 자생하고 아름드리 편백나무 숲도 조성돼 있어 우수한 산림생태를 보고 즐기며 삼림욕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꼽힌다.

또 제주 4·3 사건 당시 군 경찰 주둔지, 일제 강점기 ‘하치마키도로’로 불리던 병참용 자원수탈 통로와 숲가마터, 화전민 터 등 제주도의 역사적 사건의 자취도 남아 있다.

한라산둘레길은 자연친화적이면서도 지역주민과 소통하도록 조성한다는 트레킹길 조성 사업 기본 취지에 맞게 가장 자연에 가까운 형태로 만들기 위해 옛 길을 최대한 활용했다. 시멘트나 플라스틱 등 인공적인 부분을 일체 허용하지 않았고 주변에 있는 돌과 나무를 그대로 이용했기 때문에 새로 조성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도록 했다.

하영호 산림청 차장은 “한라산둘레길이 천혜의 산림자원을 보유한 제주도의 산림생태와 전통 역사 및 문화를 알리고 숲길이 지닌 가치와 의미를 재발견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남은 한라산둘레길 구간이 완성되면 장기적으로 한라산 등산로와 제주 올레길 등과 연계해 ‘제주도 트레킹길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4년까지 조성 완료를 목표로 하는 한라산둘레길은 왕복 5~6시간에 걸을 수 있도록 여러 구간으로 나눠 조성된다. 산림청은 한라산 둘레길 운영·관리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과 민간 단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문 의 : 숲길정책팀 이상인 사무관(042-481-8876)

어린이날에 UNCCD 청소년 녹색홍보대사 발대식

- 100명 임명장받고 활동시작, 몽골나무심기 참여자도 발표... "사막화 인식 높일것" -



10월 경남 창원에서 열리는 유엔사막화방지 협약(UNCCDO) 제10차 총회를 홍보할 청소년 녹색홍보대사 발대식이 어린이날인 5일 오후 서울 관철동 (주)교원 대회의장에서 열린다. 서류심사 및 논술 토론대회를 거쳐 선발된 홍보대사 100명은 이날 임명장을 받고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

청소년 홍보대사들은 앞으로 해외 나무심기 이벤트 등에 참여해 UNCCD 총회 개최 사실을 홍보하는 한편, 사막화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사막화 방지활동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날 홍보대사들은 자신들에게 부여된 임무와 혜택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UNCCD총회 홍보 영상과 사막화 관련 동영상을 시청한다. 또 사막화를 주제로 한 조별토론도 벌인다.

한편, 발대식에서는 6월 몽골 나무심기에 참가할 홍보대사 10명도 발표된다. 나무심기에 참여할 홍보대사는 최종선발 논술·토론대회에서 우수한 상적으로 뽑힌 청소년들이다.

발대식에서 임명장을 주고 축사를 할 박종호 산림청 산림자원국장은 “녹색홍보대사 발대식에 참석하는 청소년들에게 이번 어린이날은 뜻깊은 날이 될 것”이라며 “녹색홍보대사 활동이 사막화 및 UNCCD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이바지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山林**

문 의 : 산림청 국제협력과 이선미 주무관(042-481-8892)

장성 편백숲, 산림치유 서비스 개시

- 28일 개장식, 치유숲길·편백칩로드 등 갖춰...“장성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



전남 장성의 편백나무 숲이 산림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유의 숲으로 거듭난다.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28일 장성 편백나무 숲 안내센터에서 '장성 치유의 숲' 개장 행사를 열고 본격적인 산림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지난 2000년 산림청이 선정한 '미래를 위해 보존해야 할 아름다운 숲'으로 지정된 장성 치유의 숲은 대표적인 편백나무 조림지로 지난해에만 7만여명이 찾아올 정도로 이미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 개장을 앞두고는 치유 숲길, 치유 필드, 편백칩 로드 등의 시설을 새로 갖췄다.

이날 개장식에 참석한 전범권 산림청 산림이용국장은 “치유의 숲이 국민의 보건휴양 수요를 충족하고 장성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림**

문 의 : 산림청 산림휴양문화과 이광호 사무관(042-481-4124)

“함경도 풍산개만 아세요? 풍산가문비도 있습니다”

- 과학원서 함남도청과 남한유일 풍산가문비 복원행사...90년전 채취나무 후계목 -

함경남도 풍산 지방에 자생하는 가문비나무인 풍산가문비를 복원해 심는 행사가 남한에서는 최초로 3일 오전 산림청(청장 이돈구) 국립산림과학원 침엽수원에서 열린다. 북한 지역 자생 종인 풍산가문비는 현재 남한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서울 청량리 국립산림과학원에 보존된 차세대 나무 4그루가 유일하다.

산림과학원의 가문비나무는 지난 1923년 함북 풍산군 후치령에서 수집돼 산림과학원의 전신인 임업시험장 침엽수원에 심겨졌다. 이때 채취된 풍산가문비가 현재 산림과학원에 심겨진 나무의 부모목이다. 이 나무는 1922년 설립돼 우리나라 임업 연구의 산실 역할을 해 온 산림과학원과 역사를 함께 해 왔으나 2000년 이후 잦은 폭설과 태풍 등 기상재해와 노령화(90년 이상)로 수세가 약해지면서 2010년 10월에 고사했다.

산림과학원은 풍산가문비가 노령화돼 종자를 갖지 못하자 2002년 무성번식(접목)으로 차세대나무 4본을 증식시켜 보전해 왔다. 이날 열리는 ‘풍산가문비 차세대나무 복원 식재’ 행사는 산림청이 2011년 UN이 정한 ‘세계 산림의 해’를 기념하고 복원 식재 당시의 뜻을 기려 함경남도청과 함께 하는 행사다. 이날 행사에는 하영호 산림청 차장, 구길본 국립산림과학원장, 한원택 이북5도위원회 함경남도지사 등이 참석해 유년 시절의 풍산가문비를 추억하고 실항의 아픔을 함께 나눈다.

이날 행사와 함께 이북 원산 수종 20종 22그루의 야외 전시 및 설명회와 함께 열린다. 현재

산림과학원 침엽수원에는 풍산가문비 이외에도 함경도 원산인 토대황, 백두산 원산지인 긴개싱아, 황해도 장수산이 원산지인 장수만리화, 금강산 원산지인 털쉬땅나무 등이 자라고 있다.

구길본 국립산림과학원장은 “남한 유일의 풍산가문비 표본목이 있던 이곳에 차세대나무를 심고 이북 특산·고산 수종으로 침엽수원을 조성하는 이 행사가 우리 자생수종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산림**

문 의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태연구과 박찬열 박사(02-961-2612)



가족의 달, 눈과 입이 즐거운 대관령자연휴양림으로 가자

- 5월의 추천자연휴양림...전국 3대 미림인 금강송림에 폭포·바위가 비경 연출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서경덕)는 80년생 금강송 숲과 맑은 계곡, 바위가 빚어내는 천혜의 풍광을 간직한 대관령자연휴양림을 이달(5월)의 추천 자연휴양림으로 선정했다.

대관령자연휴양림은 1988년 우리나라에서 처음 조성된 자연휴양림으로 산과 바다를 동시에 즐길 수 있다. 지난 2007년 화재로 소실된 광화문 복원에 쓰인 금강송도 휴양림 인근 숲에서 찾았다. 휴양림 안에 있는 금강송도 이에 못지않게 거대하다. 대관령자연휴양림에 있는 금강송 숲은 1920년대 씨를 뿌려 조성한 최초의 소나무숲으로 산림청이 뽑은 전국 3대 미림(美林)중 하나로 그 생김새가 빼어나고 학술적 가치가 높다.

이곳 시설은 동서를 가로지르는 솔고개를 중심으로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다. 북쪽에는 숙박

시설이, 남쪽에는 볼거리와 즐길거리 위주로 돼 있다. 숙박시설로는 5인실 3실, 7인실 6실, 10인실 3실로 구성된 숲속의 집과 7인 12실, 8인실 2실로 구성된 산림문화휴양관과 숲속수련장이 마련돼 있다. 야영장도 두 곳인데 74개의 야영데크에 피크닉테이블도 있어 야영을 편안히 즐길 수 있다. 숙박시설 이외 황토초가집, 물레방아, 숯가마 체험장, 야생화 정원, 목공예 체험교실 등 자연학습과 산림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잔디광장, 족구장, 체력단련시설도 하고 있어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다.

등산로 코스는 다양하다. 옛 영서 주민들이 영동에 와 먹을거리를 도적질하던 곳이라는 데서 유래한 ‘도둑재’를 돌아오는 등산로가 최장 4km, 3시간 정도 걸리고 짧게는 30분동안 명품 숲을 돌아보는 코스가 있어 연령 및 신체조건에 맞게 골라 등산을 즐길 수 있다.

등산로 옆으로는 어른 두 명이 채 안지 못할 정도의 아름다리 금강송이 즐비하고形形色색의 다양한 야생화도 만날 수 있다. 대관령휴양림의 계곡은 집수구역이 넓어 사계절 내내 수량이 많고 깨끗해 음용수로도 사용한다. 계곡 곳곳에 물과 바위가 연출하는 비경에 크고 작은 폭포가 더해져 저절로 탄성을 자아내기 충분하다.

대관령자연휴양림에는 계절별로 다양한 체험거리가 있다. 숲해설과 목공예는 요청만 하면 언제든지 체험이 가능하다. 겨울에는 빙판장과 눈썰매장을 만들어 팽이치기, 스케이트, 눈썰매, 연날리기 등 다양한 겨울놀이를 체험할 수 있다. 봄에는 50여종 야생화가 만발해 포토존을 이룬다. 부정기적으로 전통 방식으로 숯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보고 전통 재래식 찜질 체험도 할 수 있다.

대관령자연휴양림 주변관광지로는 차로 20~30분 거리의 오죽헌, 경포대 해수욕장, 양떼목장, 대관령박물관 등이 있다. 세계에서 바다와 가장 가까운 역으로 기네스북에 올라있는 정동진역과 금강산을 축소해 놓은 듯 아름답다고 평가받는 소금강이 차로 40분 거리다.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면 눈이 즐겁고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곳이어서 다양한 산해진미를 동시에 즐길 수 있어 입이 즐겁다.

눈과 입이 즐거워지는 여행을 가족의 달 5월에 대관령자연휴양림으로 떠나보기를 추천한다. **산림**

문의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전병철 팀장(042-580-5590)
국립대관령자연휴양림 박영철 팀장(033-641-9990)

지리산 둘레길

2차구간 하동 구례 140km 개통

- 13일 하동서...지리산 한바퀴도는 국내최초300km장거리길 조성 막바지 -



지리산 자락인 경남 하동과 산청, 전남 구례의 산길을 연결하는 지리산 둘레길 두 번째 구간 140km를 여는 개통식이 13일 오전 하동군 적량면 옛 삼화초등학교 자리에서 열린다. 지난해 개통된 1차 조성 구간(전북 남원~경남 함양) 71km에 뒤이어 만들어진 2차 구간은 산청군 51km(수철마을~위태마을) 하동군 38km(위태마을~대축마을) 구례군 51km(주천마을~오미마을)다. 서부지방산림청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숲길이 주관하는 이날 행사에는 둘레길을 지나는 지자체의 부군수 및 간부들과 산림청 관계자, 지리산국립공원관리소장, 지역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다. 행사는 '2011년 세계 산림의 해'를 기념하는 '빼기더하기 생활 캠페인' 실천선포식과 사물놀이, 청소년 밴드공연, 명창 박양덕의 소리마당, 한국 길모임 포럼의

상생 길 잇기 등의 이벤트가 이어지며 이틀 동안 계속된다. 지리산둘레길은 지리산 권역 3개도(전남 전북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 16개 읍면 100여개 마을을 잇는 300여km에 이르는 길이다. 산림청은 2007년부터 올해까지 5년 계획으로 지리산의 둘레를 따라 옛길, 고갯길, 숲길, 강변길, 논둑길, 농로길, 마을길 등을 연결하는 전체 구간을 완공할 예정이다. 산림생태를 체험하고 휴식과 사색을 즐길 수 있는 지리산 둘레길에서는 주민이 개발한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참여해 지역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trail.or.kr)나 안내센터(055-884-085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최광철 산림청 숲길정책팀장은 “지리산둘레길에서 산림생태와 지역의 역사·문화를 체험하고 자연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하길 바란다”며 “일부에서 숲길 조성으로 인한 산림훼손과 생태계 파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지리산둘레길을 걸어보면 이런 우려를 말끔히 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림**

문 의 : 산림청 숲길정책팀 이상인 사무관 (042-481-8876)

산림청, 초등학교 5학년용 산림교과서 개발

- 여러곳 나눠실렸던 산림관련내용 통합한 '만남의 숲' ...어린이눈높이 맞춰 -



산림청(청장 이돈구)이 산림의 가치와 중요성을 어린이들에게 가르치는 초등학교 5학년용 산림교육 전문교과서 '만남의 숲'을 개발했다. 기후변화에 대응할 유일한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받는 산림의 가치가 중요해짐에 따라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이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에서다. 이 교과서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내 교과서에 과목별로 산발적으로 나오던 산림에 관한 내용을 수정·보완하고 기후변화, 에너지 등의 문제를 산림의 관점에서 교육·체험할 수 있게 재구성했다. 또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먹을거리, 연필, 집, 새 등을 소재로 썼다. 직접 해볼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흥미로운 읽을거리 등을 넣어 일상에서부터 숲과의 연결성을 배울 수 있도록 한 것도 눈에 띈다.

현재 서울과 경기도의 각 1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적용 중인 이 교과서는 시범적용이 끝나는 대로 수정 및 보완을 거쳐 시·도 교육청에 인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인정교과서로 발행한 후에는 청소년 산림단체인 푸른숲선도원 활동 때 활용하거나 학교숲 시범학교에 홍보용으로 제작·배포한다.

2012년부터는 학교숲 시범학교로 선정되면 이 교과서를 구입해 활용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교과용 도서 전문출판사와 협력해 일반 서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5학년용 교과서에 이어 학년별로 산림교육이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도록 초등학교 저학년, 중학교, 고등학교용 인정교과서를 연차적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고기연 산림휴양문화과장은 “산림교과서를 활용한 교육은 학업에 지친 아이들에게 숲을 바라보는 안목과 마음의 여유를 주고 산림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림**

문 의 :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 김평기 주무관(042-481-4216)

산림치유지도사 제도 도입 추진된다

- 산림청, '산림문화휴양법' 개정추진...치유사 양성기관 지정제도도 포함 -



숲의 치유기능을 활용한 산림치유를 전문으로 하는 산림치유지도사 제도를 도입하고 지도사를 양성하는 기관을 지정하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산림치유의 개념을 규정하고 산림치유사 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연 속에서 인체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하려는 수요가 늘면서 산림의 치유기능에 대한 관심은 늘고 있지만 산림치유의 개념이 아직 정착되지 못했고 전문성도 미흡해 국민이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산림청은 이에 따라 법률에 산림치유의 정의를 신설하고 현행 법의 '치유의 숲' 개념을 조정하는 한편, 산림치유지도사 자격부여 및 육성·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제도 도입 등의 조항을 넣을 계획이다. 전범권 산림청 산림이용국장은 “'산림치유'와 '치유의 숲' 정의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면 산림치유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전문인력에 의한 산림치유 지도활동이 가능해져 국민 건강 증진은 물론, 젊은 층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산림**

문 의 : 산림청 산림휴양문화과 이광호 사무관(042-481-4124)

제3회 대한민국 도시숲 설계공모 대전

- '건강·문화가 공존하는 도시숲' 주제로 6월20일까지 신청받아...대상500만원 -



도시숲 조성사업 품질향상과 기술 발전을 위한 제3회 대한민국 도시숲 설계공모 대전이 열린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도시숲 조성설계에 관심있는 학생과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도시숲 설계 대상지는 산림청이 지자체 추천을 받아 선정해 산림청 홈페이지 알림마당에 게시한다.

참가신청 마감은 6월 20일, 작품제출 마감은 9월 20일이다. 작품 주제는 '건강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숲'이다. 주변과 조화되고 다양한 동·식물이 공존하며 생태적 역할을 수행하는 도시숲이 기본이다.

심사결과 대상으로 뽑힌 1개 작품에 500만원을, 우수상 2개에는 200만원씩을 각각 지급하는 등 모두 18개 작품에 1900만원을 상금으로 준다.

최수천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도시숲정책 사업의 체계적인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다양한 설계유형이 필요하다"며 "공모전을 통해 설계 분야 인프라를 구축해 발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산림**

문 의 :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조백수 사무관 (042-481-4224)

산림청, 외교관과 함께하는 '광릉숲길' 탐방 개최

— 주한 외교관 및 가족 14개국 28명 참여 —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24일 한국등산트레킹 지원센터와 함께 약 4시간여 동안 광릉숲 일원에서 주한 외교관 및 그 가족들과 함께하는 “광릉숲길 탐방”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UN이 정한 ‘세계 산림의 해’를 기념하여, 외교관과 가족들에게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숲을 자연스럽게 느끼고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체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 한편 참여자간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14개국 주한 외교관과 가족 등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오늘 탐방행사에서 산림청은 각 국 외교관과 가족들에게 변화하고 있는 우리나라 산림정책을 소개하고, 작년 6월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등재된 광릉숲의 중요성과 아름다움 및 대중적인 여가활동으로 자리 잡은 우리나라의 등산문화 등에 대해서도 설명해 참석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광릉숲에 있는 국립수목원 내에서 참여 외교관과 가족이 함께하는 ‘우정의 나무 심기 (Friendship Tree - Planting with Ambassadors to Korea)’ 행사를 통해 숲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대국민 교육의 장으로 활용해 나갈 예정이다.

산림청 최광철 숲길정책팀장은 “최근 기후변화 등 지구환경문제에 따른 산림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이번 행사를 통해 주한 외교관과 가족들에게 산림의 중요성과 한국의 산림정책에 대해 홍보하고 우리나라의 숲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한국에 대한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밝혔다. **산림**

문 의 : 산림청 숲길정책팀 이영록 사무관(042-481-4106)

‘세계산림의 해’ 기념 숲 단편영화 공모

- 숲의 중요성 알리는 5분내 작품이면 누구나 응모가능...최우수상 500만원 -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UN이 정한 ‘세계 산림의 해’와 올 10월 열리는 세계사막화방지협약 당사국 총회를 기념하는 숲 단편영화제에 상영될 초단편 영화를 600만원의 상금을 걸고 6월 한달동안 공모한다. 숲 단편영화제는 지구촌이 당면한 3대 환경문제인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사막화 문제를 해결할 유력한 대안인 숲과 산림의 역할과 소중함을 알리려고 기획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공모 주제는 일상생활 속의 ‘숲이 인류에게 주는 혜택(Forest for People)’이다. 세부적으로는 ‘물과 대기의 순환을 도와 지구환경을 지킵니다’ ‘숲은 우리 몸과 마음을 치유해 줍니다’ ‘숲은 물을 머금어 맑고 깨끗하게 걸러줍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어 냅니다’ ‘숲은 삶의 터전이며 쉼터입니다’ ‘숲은 야생동물이 살아 숨쉬는 공간입니다’ ‘숲에는 다양한 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등으로 나뉜다. 영화 학도, 시민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드라마, 멜로, 액션, 코미디, 다큐멘터리 등 장르에 구분 없이 5분 이내 1GB 이하의 단편영화라면 응모 가능하다. 작품 출품은 서울국제초단편영상제 (SESIFF) 홈페이지(www.sesiff.org)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SESIFF 홈페이지와 세계산림의 해 마이크로사이트(iyof2011.co.kr/micro)를 확인하면 된다. 30일까지 작품을 받고 7월 11일에는 최종 수상작을 발표하는 시상식이 열린다. 최우수상에 500만원, 관객상 수상자에 100만원이 각각 부상으로 수여된다. 수상작은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디큐브시티에서 열리는 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에서 상영되고 이 기간동안 CGV신도림에서도 볼 수 있다. 또 10월 10일부터 21일까지 개최되는 UNCCD 총회 기간 중에도 상영된다. **산림**

문 의 : 산림청 산림정책과 강혜영 사무관(042-481-4135)

“숲속 오케스트라 공연에 빠져 보세요”

- 18일 광릉숲서 산림문화행사...오케스트라 선율에 숲태교 강좌까지 -



UN이 지정한 ‘세계 산림의 해’를 기념하고 숲이 주는 편안함을 맘껏 느낄 수 있는 산림문화행사가 이번 주말에 열린다.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18일 오후 1시부터 경기도 포천 국립수목원 광릉숲에서 산림문화강좌와 숲속 오케스트라 공연을 연이어 개최한다. 저명인사가 숲에 얽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산림문화강좌는 산림청이

지난 3월부터 매월 개최하고 있는 행사. 이번 강좌에는 대한태교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는 박문일 한양대 의대 교수가 강사로 나선다. 전통 태교에 관심을 갖고 관련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박 교수는 평소 “숲의 아름다운 풍광을 눈에 담고 새소리와 시냇물 소리 등 자연이 선사하는 멜로디를 자궁 속 태아에게 들려주면서 공해없는 깨끗한 산소를 들이마시면 태교에 아주 좋다”는 지론을 펼쳐오고 있는 인물이다. 야외에서 펼쳐지는 숲속음악회는 김부궁 평화방송 아나운서가 사회를 보는 가운데 숲속에서는 보기 드문 오케스트라의 공연으로 펼쳐진다. 자연의 소리와 잘 어울리는 통기타의 선율도 함께 한다. 린나이팝스오케스트라가 해바라기의 ‘사랑으로’ ‘내마음의 보석상자’를 비롯해 쇼스타코비치의 축전서곡, 한국환상곡, 농촌의 아침 등을 연주한다. 린나이 팝스오케스트라는 1986년 창단된 민간기업 오케스트라. 음악을 통해 사회공헌에 앞장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행사에 앞서 광릉숲을 찾은 사람들에게는 숲해설가가 안내하는 광릉숲 생태탐방의 시간도 마련돼 있다. **산림**

문 의 : 산림청 산림휴양문화과 변상우 주무관(042-481-4217)

한국·몽골 청소년이 손잡고 사막화 방지하는 나무심는다

- 산림청, 10일부터 녹색사업단과 룬솜서 조림활동...녹색홍보대사·다문화청소년 참여 -



10월 17일 세계사막화방지의 날을 앞두고 산림청(청장 이돈구)이 사막화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몽골에서 나무심기 활동을 펼친다. 산림청은 녹색사업단과 함께 10일부터 3일간 한 몽골 그린벨트 사업이 진행 중인 몽골의 룬솜 조림지에 청소년 녹색홍보대사단 및 다문화 가정 청소년 등 50여명을 보내 조림작업에 참여한다. 참가자

들은 현지에서 몽골 청소년과 마을 주민 등 120여명과 같이 식수 활동을 벌이고 산림청이 조성한 양묘장, 전시림, 조림지를 둘러볼 계획이다. 또 몽골 사막화방지연구소에서 사막화 관련 연구성과를 살펴보고 사막화방지 실천의지를 다지는 시간도 갖는다. 청소년 녹색홍보대사와 국내 몽골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현지 청소년들과 서로의 문화를 나누고 유대감을 쌓는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임은호 산림청 국제협력과장은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사막화의 심각성을 생생하게 깨닫는 한편, 숲을 조성하는 일이야말로 사막화를 방지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데 공감하게 될 것”이라며 “사막화 문제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 인식이 오는 10월 아시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총회에 대한 지지와 관심으로 이어지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몽골에서 2016년까지 서울 여의도 면적(2.8km²)의 10배에 해당하는 3000ha에 사막화방지 조림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 2007년 사업 시작 이래 현재 651ha에서 사업이 완료됐다. **산림**

문의 : 산림청 국제협력과 이선미 주무관(042-481-8864)

“직접 가지치기 해보고 나무목걸이도 만들어봐요”

— ‘세계 산림의해’ 기념해 22일 잠실 키자니아에 ‘어린이 산림직업 체험관’ 개장 —



UN이 정한 ‘세계 산림의 해’를 기념해 도시 어린이들이 산림의 중요성과 산림청의 역할을 체험으로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산림직업 체험관이 만들어졌다.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22일 오전 서울 잠실 롯데월드 내 키자니아에서 어린이가 산림청 직원이 돼 숲가꾸기 등을 직접 해 볼 수 있는 ‘어린이 산림직업 체험관’ 개장식을 갖는다. 체험관은 영상 및 전시물을 이용한 교육공간, 가지치기와 나무 외과수술, 나무주사를 직접 해 볼 수 있는 인공 숲으로 나뉘져 있다. 어린이들은 이곳에서 직접 자른 생가지로 나무목걸이를 만드는 등 목공예 체험도 할 수 있다. 산림청은 이날 개장 기념으로 한국녹색

문화재단 및 운영업체와 공동으로 소외계층 어린이 100여명을 초청해 다양한 직업을 무료로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참가 어린이들에게는 산림엽서와 손수건 등 기념품도 증정한다. 여름방학동안에는 작업장 체험 후기를 공모한 후 선정된 어린이에게 가족 직업체험 무료 티켓을 제공하는 행사도 마련 돼 있다. **산림**

문의 : 산림청 산림휴양문화과 김평기 주무관(042-481-4216)

“아름다운 숲, 생명의 숲을 찾습니다”

- 제12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27일부터 7월말까지 인터넷으로 접수 -



경관이 빼어나고 생태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아름다운 숲을 찾는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가 올해도 이달 말부터 시작된다.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숲의 소중한 가치를 널리 알리고 보전하기 위해 사단법인 생명의숲국민운동 및 유한킴벌리와 공동으로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를 열기로 하고 27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후보지 신청을 받는다.

12번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숲이 온갖 동식물을 키워내는 근원이고 인간에게도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자원이라는 의미에서 ‘생명의 숲을 찾습니다’란 주제로 열린다. 숲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생명의 숲 홈페이지([http:// beautiful.forest.or.kr](http://beautiful.forest.or.kr))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메일이나 우편으로는 접수하지 않는다.

신청된 후보지는 9월 10일까지 서류 및 현장 심사, 온라인 시민투표를 거쳐 아름다운 숲으로 최종 선정된다. 산림청은 최고상인 아름다운 생명상 1곳, 아름다운 공존상 9곳을 뽑아 각 후보지에 입선 사실만을 통보한 뒤 10월 21일 시상식 현장에서 아름다운 생명상에 선정된 숲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자원과장은 “우리 주변에서 늘 보는 숲의 가치를 되새기고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이 행사를 마련했다”며 “추억이 깃든 숲, 함께 나누고 싶은 숲, 자신만의 의미가 담긴 숲 등 좋은 숲을 찾아서 많이 추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산림청이 지금까지 선정한 아름다운 숲은 모두 186곳이다. **山林**

문의 : 산림청 산림자원과 주요원 사무관(042-481-4181)

생명의숲국민운동 이수현 처장(02-735-3238)

8월분 성수기 국립자연휴양림도 추첨제로 예약

- 다음달 4일부터 8일간 인터넷으로 신청받아...7월 남해편백은 557대 1 -



국립자연휴양림에 대한 8월분 여름 성수기 추첨제 예약이 7월 4일부터 11일까지 인터넷으로 실시된다.

추첨제 예약은 여름 휴가철 휴양림에 대한 수요가 폭증해 기존의 선착순 방식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어 일정기간동안 신청을 받아 무작위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서경덕)이 지난 2003년

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8월분 추첨 예약 신청은 7월 4일 오전 10시부터 11일 오전 10시까지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홈페이지(<http://www.huyang.go.kr>)에서 신청 받는다. 추첨결과는 11일 오후 6시 이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및 산림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에 발표된다.

한편, 지난달 실시된 7월분 예약에는 9568명을 뽑는 추첨에 지난해(6만2541명)에 비해 두배 늘어난 12만4697명이 참여, 평균 경쟁률이 13 대 1에 이르렀다. 특히 남해편백자연휴양림 노루섬 객실은 무려 557대1(7월 30일)이라는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성수기 추첨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웹 고객을 초청해 추첨 과정을 참관하도록 하고 있다.

추첨제 예약에 참여하려면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콜센터(1588-3250)로 문의하면 된다. **산림**

문의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전병철 주무관(042-580-5590)

해송림 피해주범 솔껍질깍지벌레 발생면적 43% 감소

- 전국실태조사, 50시·군·구서 1만3000천ha...효율적방제로 2002년 수준 회복 -



남·서해안 지역 소나무(해송)에 피해를 주는 솔껍질깍지벌레 발생면적이 지난해에 비해 4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림청(정장 이돈구)이 지난 5월부터 전국에 걸쳐 실시한 실태조사를 통해 밝혀진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올해 솔껍질깍지벌레는 전국 7개 광역 시·도, 50개 시·군·구 1만3000ha에 걸쳐 발생했다. 지난해 발생

면적은 이보다 넓은 2만2000ha였다.

주로 바닷가 해송림에 피해를 주는 솔껍질깍지벌레는 지난 1963년 전남 고흥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2007년 발생면적이 4만7000ha에 이를 정도로 극성을 부렸다. 그러나 2009년부터 실시된 '솔껍질깍지벌레 방제 5개년 계획'에 따른 효율적 방제 이후 면적이 꾸준히 줄어 올해는 2002년 수준으로 회복됐다.

올해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는 남해안을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경북 포항, 서쪽으로는 충남 태안까지 해안선을 따라 나타났다. 서해안은 회복되는 반면, 동해안은 작년보다 조금 늘었다.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를 입으면 나무 아래가지부터 변색되고 수년간 지속적으로 피해를 받으면 수세가 약한 어린 나무부터 점차 고사가 진행된다. 이는 감염되면 100% 고사하는 소나무재선충병과는 다른 피해 특성이다.

이명수 산림청 산림병해충과장은 "솔껍질깍지벌레 피해 근절을 위해 9월부터 동·서해안 선단지역과 피해가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나무주사 4685ha, 임업적 방제 3290ha를 실시해 확산을 저지하고 경미한 지역은 숲가꾸기(숲아베기)를 해서 해송림 생육 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재**

문의 : 산림청 산림병해충과 최현수 주무관(042-481-4069)

“사막화 방지, 이보영과 함께 해요”

- 탤런트 이보영, 23일 UNCCD총회 홍보대사 위촉...D-100앞두고 본격 홍보활동 -



영화 ‘우리 형’ ‘비열한 거리’, 드라마 ‘서동요’ 등에 출연했던 인기 탤런트 이보영씨가 아시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유엔사막화방지협약 (UNCCD) 제10차 총회를 국내외에 알릴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이씨는 그동안 유니세프 홍보대사로 다양한 자선행사에 참석했고 몽골 봉사

활동, 환경지킴이 화보 촬영 등의 활동을 통해 환경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보여 왔다. 이에 따라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23일 사막화방지 국제심포지엄이 열리는 서울 코엑스에서 위촉식을 가졌다.

이씨는 10월 10일 창원에서 열릴 UNCCD 총회 개막식을 비롯해 다양한 행사에서 사막화방지의 중요성을 알리고 UNCCD 개최사실을 홍보할 예정이다. 이씨는 7월부터 방영되는 MBC 주말 드라마 ‘애정 만만세’ 에도 출연한다.

임은호 산림청 국제협력과장은 “평소 환경 보호와 나눔 활동에 솔선수범해온 이씨가 홍보대사로 위촉됨에 따라 UNCCD에 대한 국민 관심이 더 높아질 것”이라며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총회의 성공적 개최에 한발 더 다가가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UNCCD 총회를 주관하는 UNCCD 사무국은 올초 스페인 프로축구 선수 카를로스 마르체나를 UNCCD 해외 홍보대사로 선정해 사막화 방지 활동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다. **산림**

문의 : 산림청 국제협력과 이선미 주무관(042-481-8892)